

교우론 (De Amicitia, 交友論)

- 마태오 리치 신부가 저술한 최초의 한역서학서 -

2019. 부활절에, 김학렬 若望 신부.
약망

1-1. 마태오 리치(1552- 1610) 신부는 1582년 8월 7일에 마카오에 도착한 이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엘이 선종하면서까지 염원했던 대로, 동양문화의 중심인 北京으로 진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외국인으로서 간첩혐의를 의심받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북경을 향하여 진출하려던 리치 신부는 1595. 6. 28일에 처음으로 建安王 (Chiengan)을 만나게 되었다. 1595년 10월 28일에는 南昌(Nancciam) 체류허가를 巡撫인 陸萬垓(天溥, 仲鶴)에게서 받았으며, 거기서 명 황제의 친족들을 만나 교류하게 되었다. 1) 특히 건안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부터, 간접적인 선교를 염두에 두고, 최초의 漢字 작품인 [교우론]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 저술은 마태오 리치가 중국선교란 최종목적에 다가가기 위해 채택한, 적응주의적 방법 (adattamento, adaptationism)의 일환이었다. 이는 중국과 그 주변국가에서도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서선교란 새로운 선교방법을 채택하게 됨을 의미했다. 2)

1-2. 왕족들은 1595년 8월 29일까지 3번이나 리치 신부를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은 구태소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3). 특히 建安王(Chiengan, 朱多火節[춧불뚱절], 乾齊)과 樂安王(Loan, 多煥)은 리치와 대화하고 교류하기를 원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건안왕이 더 적극적이어서, 리치 일행을 그의 왕실로 불러들여 함께 茶를 마실 뿐만 아니라, 3번이나 식사에 초대하며 교류를 넓혀 나갔다. 리치 신부는 그들이 귀중히 여기는 선물로서, 구리 기름통과 성 라우렌시오 동상, 지구의와 나침판, 石材 해시계와 책 등을 선물하였다. 4)

1-3. 이에 화답하여 건안왕은 비단과 은제품, 먹을 것 등을 선물하였다. 5) 그가 리치에게 받은 선물들 중에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두 종류의 책들이 있었다. 하나는 유럽 방식대

1)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 고문서고(Archivio della Pontificia Universita' Gregoriana./APUG), Ms. t. 292, pp. 189-200.; Matteo Ricci, Dell'amicizia, a cura di Filippo Mignini, Macerata 2005.; Pasquale M. d'Elia, Fonti Ricciane, 1942 Roma, N. 465- 남창 참조. 앞으로 이 책을 FR로 약칭한다.; 송영배 역주, 교우론, 2013 서울대, p.5-각주 2.
 2) 메디나 지음. 박철 옮김, [한국천주교전래의 기원(1566-1784)], 1993 서강대, 89.
 3) FR N.478-각주1.
 4) FR N.479.
 5) FR N.480.

로 일본제 종이로 만들어 액자에 넣은 **세계지도**로서, 이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호주와 함께, 4원소와 9중천으로 이루어진 지도였다. 다른 종류는 중국에서 구경할 수도 없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수학책**이었다. 또 다른 책은 교우론에 관한 것으로서, 건안왕이 리치 신부에게 유럽에서는 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리치 신부가 기억나는 대로 그리스 철학자와 성인, 고대 및 근대 (라틴)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대답한 것이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교우론]** 작품이 되었다. 6) 이렇게 [교우론]은 리치 신부가 만든 최초의 漢文 작품(**한역 서학서**)이 되었다.

2-1. [교우론]은 리치가 저작한 글 가운데 가장 짧은 글로서, **2천여자의 漢字**로 되어 있고, 리치 자신이 출판한 적은 없었다. 7) 책 제목은 Chiaoieu Lu'en 즉 Trattato sull'Amicizia 交友論이다. 리치는 짧은 서론에서, 1595년에 어떻게 남창에 도착하였는지, 어떻게 건안왕의 연회초대에 응하였고, 유럽의 식자들이 우정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였는지 알려달라는 건안왕의 청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76개의 아주 짧은 문장들을 먼저 써 주었는데, 후에 다시 24개 문장을 추가하여 100개의 문장으로 완성하였다.** 8) 이리하여 **풍응경 Fomimchin**은 1601. 2. 9일자로 출판한 서문에서, 교우론이 100 개의 문장으로 되어있다고 기술하였다. (友論凡百章 / 예수회 고문서고 영인본 **교우론 2a**).

2-2. [교우론]이 처음으로 출판된 날짜에 대해, 출판된 [교우론]의 끝에서 萬曆二十三年歲次乙未三月望日, 즉 양력 1595. 4. 24일 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기록이다. 왜냐하면 리치가 처음으로 건안왕을 만나 알게 된 날자가 1595. 6. 28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출판일이 잘못된 표기된 이유는 리치가 필기한 교우론을 전해 받아 彫刻하면서, 縱으로 표기된 11월을 3월로 착각하여 읽고 彫刻하였기 때문이다. (十 => 三). 따라서 출판 발행일은 음력 11월 15일(양력 12월 15일)이 되어야 정확하다. 9)

2-3. [교우론]은 리치가 1595년 9월 4일 이후 남창에서, 라틴어와 이태리어로 된 기존의 명언 문장들을 번역하여 한문으로 작성하였으며, 1595년 말 이전에 건안왕에게 증정한

6) FR N.482.;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소순태 교수가 찾아내어 필자에게 제공한, 교우론 영인본과 천학초함 영인본의 전문을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2-1610_마태오_리치/1595_교우론.htm /이 교우론 영인본은 예수회 로마 고문서고 Jap-Sin. I 49에 있고, 1601.1.7.자의 서문이 들어 있으나, (4a -명 만력 신축 춘 정월 인일 명덕 당明萬曆 辛丑 春正月人日 明德堂) 14b-15a는 낙장 되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29_천학초함/천학초함_전6책.htm (여기서 교우론은 pp. 299-320에 들어 있다.)

7) FR. N. 464.; FR. N. 1513, 1558.

8) Matteo Ricci, Dell'amicizia, a cura di Filippo Mignini, Macerata 2005., p. 31.에서, 후반부 24개 문장이 1599년 8월 이후에 첨가되었다고 한다.

9) FR N.482.의 각주 1(p. 368)에서 d'Elia 신부가 자세히 밝히고 있다.

작품이다. 10) 그러나 리치에게 언급도 하지 않고, 한 친구가 寧都에서 처음으로 교우론을 출판하였다. 11) 이후 구태소(구여기)가 1599년 1월 27일자 서문을 넣어 남창에서 제2판을 출판하였고(萬曆己亥正月穀旦 友人瞿汝夔序), 2년 후에는 풍응경 역시 리치의 허락도 없이 북경에서 1601.2.9.(양력)자의 서문을 넣어 출판하였으며(明萬曆辛丑 春正月人日(7일) 明德堂), 이 명 만력 신축 춘 정월 인일 명덕 당 지조 역시 1603-1608년 사이에 다시 출판해냈다. 12)

3-1. 마태오 리치 신부와 미켈레 루지예리 신부는 1583년부터 1588년까지, 5년에 걸친 작업 끝에, 葡中辭典도 편찬하였었다. 또한 1598년에 리치 신부가 처음으로 북경에 들어갈 때, 종명인 修士와 카타네오 신부의 협조를 얻어, 音韻字典도 편찬하였다. 이어서 리치 신부는 1605년에 西字奇跡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은 라틴문 字母를 한자에 붙여 중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학습하기 쉽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이렇듯이 마태오 리치 신부는 라틴문 자모를 한문에 붙인 표기법의 창시자가 되었다. 13)

4-1. 리치 신부가 [교우론]에서 인용한 문장들, 즉 名言들의 출처에 대하여, 방호(方豪)신부가 치밀한 연구 끝에 밝혀냈는데, 저술가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

聖 Augustinus(奧斯定) 10 개조, <small>성</small>	Aristoteles(亞里士多德) 6 개조,
Horatius(荷拉西) 1 개조,	Zeno(才諾) 1개조,
Cicero(西塞祿) 14 개조,	Socrates(蘇格拉底) 1 개조,
Diogenes(第奧杰納斯) 1 개조,	Seneca(索納加) 7 개조,
Plinius(伯里尼烏斯) 1 개조,	聖 Ambrosius(盎博羅削) 3 개조, <small>성</small>
Plutarchus(白羅多亞爾各) 13 개조,	Messander(梅桑特爾) 1 개조,
Valerius(梵勒里烏斯) 2 개조,	Haerzio(萊爾齊奧) 1 개조,
Casiodoro(西奧陶洛) 1 개조,	Erasmus(愛拉斯摩斯) 1 개조,
Gelius(杰利烏斯) 2 개조,	Publius(Mimus, 勃利烏斯) 1 개조,
Ovidius(烏維第烏斯) 1 개조,	Quintilianus(昆底里亞諾斯) 1 개조,

10) FR. N. 1475, 1476, 1513.
 11) 리치는 교우론을 이미 작성하였으나, 교회인가 <Imprimatur>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고로 정약종의 [주교요지]에 대해 교회인가를 허가한 사람은 주문모 신부였다. (황사영 백서 37행에, ‘神父准行之’).
 12) FR N.626, 632, 706.; 천학초함 영인본, 羅光 主教, 중화민국 53년(1964) 臺北市, p. 293, 297.
 13) 서양자, 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 2010 도서출판 순교의 맥, p. 149.
 14) 沈定平, 이경규외 번역, 明清之際中西文化交流史 XIII, 2010 부산교회사보 68호, p. 82에서 재인용.; 후에 출판된 [성경직해]에 이들의 이름이 똑같이 기록되고 있다.; 金口若望에 대하여, 민기, 한중일 가톨릭 어휘사.<한국교회사 논문집 II>, p.603에서, 한글본 [성경직해(광익)] 필사본에는 ‘피수’였다가, 1893년 활자본[성경직해]에 와서 ‘금구’로 바뀌었다. 디아스 신부의 [성경직해 1636]의 ‘基所’에서 피수로, 이어서 金口로 바뀌었다고 한다.

Cassianus(加西亞諾斯) 1 개조,
Demosthenes(特莫斯德納斯) 2 개조,
Gregorius(額我略) 1 개조,
Aelia(愛利亞) 1 개조,

Martialis(馬爾齊亞里斯) 1 개조,
Cassiodorus(西奧道羅斯) 1 개조,
聖 Cyprianus(西潑里亞諾斯) 1 개조,
聖 Joannes Chrysostomus (金口若望) 1 개조.

4-2. 하지만 D'Elia 신부의 주장은, 리치 신부 자신이 이 명언 서양 고전 名言들을 西洋古典에서 직접 採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책으로 출판되어 수중에 지니고 있던, 포르투갈 출신 Andrea d'Evora 편집의 <Sententiae et Exempla, 금언 모범 金言과 模範> 이란 책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리치는 희랍 학자들과 라틴 학자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 성인들의 글 모음 가운데서, 특히 의도적으로 옛날 이교도들의 고전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국 지식인들이 잘 알고 있는 중국 고전 中國古典과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15)

4-3. 이 작품은 리치 자신의 이태리어 표현대로, 며칠 동안 수집하여 정리한 내용으로서, 어려서부터 암기한 내용을 기억해낸 것과 또 이미 중국에 와서 4서 5경을 공부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포르투갈 출신의 Andrea d'Evora가 편집한 Sententiae et exempla/ Ex probatissimis quibusque scriptoribus collecta, &/ per locos communes digesta. 란 책에서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리치가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 5판 본(1590년 빠리 발행)이 북경 북당성당 內 예수회 고문서고에 1949년까지 있었고, 이후 라자리스트회의 문서고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리치가 정리하고 축약하여 내놓은 이 작품은 Cicero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16) 필자는 1575년과 1612년에 발행된 Andrea d'Evora 편집의 원문을 확보하였는데, 그 두 발행본의 내용이 똑 같으므로, 리치가 참고하였을 그 중간본인 1590년 판본과도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리치가 교우론에서 인용하였을 내용을 1575년의 빠리 발행 제2판본에서 찾아 (주

15) 책명은 **Sententiae et Exempla**, Ex probatissimis quibusque scriptoribus collecta, Et per locos communes digesta per **Andream Eborensem Lusitanum**, 1575 2da editio Parisiis. 이다. (Biblioteca Naz. Roma, Vittorio Emanuele 소인 消印/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소순태 교수가 찾아내어 필자에게 제공한, 마태오 리치의 저서 교우론의 번역대본에 포함되는, Sententiae et exempla의 1575년판, 그리고 그 이후의 1612년판의 전문들을 찾아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2-1610_마태오_리치/1595_교우론_번역대본_1575년판.htm ;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2-1610_마태오_리치/1595_교우론_번역대본_이후_1612년판.htm); 노용필, 조선후기 천주교의 수용과 마태오 리치의 교우론,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2008 한국사학, p. 30.에서는 Cicero 15회, Plutarch 14회, Augustinus 11회, Aristoteles 6회, Seneca 6회, Diogenes 5회, Erasmus 2회로 집계하고 있다.

16) FR N. 482. 각주 1번에서 D'Elia 신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Matteo Ricci, Dell'amicizia, a cura di Filippo Mignini, Macerata 2005., p. 15-20 참조.

로 amicitia와 inimicitia 목록), 교우론 원문(이태리어, 한문)과 대비해보면, 아래와 같다.

교우론 1장 17) / L'amico non e' altro che la meta' di me o un altro io. Onde e' necessario trattar l'amico come se stesso. 오우비타 즉아지반 내제 아야 고당시우여기 吾友非他 卽我之半 乃第2我也 故當視友如己 焉.연(로마 고문서고 영인본 5b)/ 나의 벗은 남이라기 보다는 나의 반쪽이며, 곧 제2의 나이므로, 당연히 벗을 자신처럼 여겨야 한다. <= Amicus, animae dimidium. **Augustinus** 3. Confessio (p 62)./ 벗은 영혼(나의 반쪽이다. + Amicus se debet habere ad amicum tamquam ad seipsum, quia amicus est alter ipse. **Aristoteles** Eth.4. (p 59)/ 벗은 제2의 자신이기 때문에, 벗을 벗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처럼 여겨야 한다.

교우론 2장 / Seben l'amico et io habiamo doi corpi, nondimeno ne i due corpi per lo stretto vincolo dell'amore si dice esservi una sola anima et' un' sol cuore. 우지여야수유 友之與我雖有 2身 2身之內其心1而已.신 신지내기심이기(영인본 5b)./ 벗과 나는 비록 두 몸이지만, 두 몸 안에 있는 하나의 마음이다. <= Amicus una anima est in duabus corporibus habitans. **Aristot.** Apud Diog. lib. 5(p 60). / 벗과 나는 두 몸으로 있지만, 하나의 마음(영혼)이다.

교우론 3장 / Il tener bisogno l'un dell'altro e soccorrersi insieme e' principio dell'amicitia. 상수상우 위결우지유 相須相佑 爲結友之由.영인본 5b./ 서로 요구하고 서로 돕는 것이 벗으로 맺어지는 이유이다. <= Amicitia aequitas est reciprocae benevolentiae. **Aristot.** Apud Diog. lib.5(p 60). / 우정은 상호 호의(친절)를 베푸는 것과 같다.

교우론 4장 / Il figliolo obediente piglia e continua l'amicitia del Padre morto insieme co' l'heredita' di esso. 효자 계부지소 교우 여승수부지산업의 孝子繼父之所交友 如承受父之產業矣.영인본 5b./ 부친의 산업을 이어 받는 것처럼, 효자는 부친의 교우관계도 계승한다. <= Filus sicut in substantia derelicta, ita in paterna amicitia succedere debet. **Socrat.** apud eund. de vitand. usur(찬탈 방지. p 59). / 아들이 (부친의) 남겨진 재산을 이어 받듯이, 또한 아버지의 우정도 계승해야 한다.

교우론 5장 / Quando no' habiamo nessun travagli o negotio difficile, e' difficil cosa conoscer i veri dai falsi amici: ma subito che si cade in qualche avversita', si scuopre parimente la verita'. 시 時 당평거무사 난지우지진위 임난지경 즉우지정현연 18) 當平居無事 難指友之眞僞 臨難之頃 則友之情顯焉.영인본 5b./ 아무 탈 없이 지낼 때에는 벗의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지만, 재앙이 닥칠 때면 벗의 (본성) 정성이 드러나게 된다. <= cf. Amici secundis in rebus advocati adsint: in calamitatibus autem sua sponte, atque invocati. **Demosthe.**(60)./ 친구들이란 (내가) 영화로울 땐 청해야 (마지못해) 오지만, (내게) 재앙이 닥쳤을 땐 부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온다.(교우론 64장 참조).

교우론 7장 / Bisogna ben considerar prima di far amicitia con alcuno; ma poi ch'e' fatta l'amicitia convien fidarsi dell'amico. 교우지선익할 교우지후의신 交友之先宜察 交友之後宜信.영인본 6a./ 벗을 사귀기

17) 이태리어는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 고문서고(Archivio della Pontificia Universita' Gregoriana), Ms. 292, pp. 189-200.; 한문본은 소순태 교수가 제공한 로마 예수회 고문서고의 영인본을 인용.
18) 천학초함 영인본, 羅光 主教, 중화민국 53년(1964) 臺北市발행, p.300에서는 特자로 기록하였는데, 이지조가 천학초함을 발간하면서, 時를 特으로 바로잡았을 것이다.(소순태 교수 견해).

전에는 宜當^{의당}히 살펴보지만, 사권 다음에는 마땅히 믿어야 한다. <= Post amicitiam credendum est, ante amicitiam judicandum. **Senec.** Epist. 3.(p. 60ab) / 우정은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하지만, 그 후에는 (마땅히) 믿어야 한다.(교우론 49장이 후반부이다.)

교우론 14장/ * 14장의 이태리어 번역은 없다. 徒試之于吾幸際 其友不可恃也.(영인본 6b)/ 내가 행복할 때만 交際^{교제} 하려는 그 친구는 믿지 말아야 한다. <= **cf.** Amicus certus in re incerta cernitur. **Cic.** in Laelio.(p 61)./ 확실한 친구는 어려운 (불행한) 일을 만나서야 분별할 수 있다.

교우론 15장/ Io mi ricordo de gl'amici morti senza tristezza, per cio' che, quando erano vivi, gli tenevo come cosa che potevo perdere, et hora che son morti mi ricordo d'essi come se fossero vivi. 既死之友吾念之無憂 蓋在時我有之如可失 及既亡念之如猶在焉.(영인본 6b-7a)/ 이미 죽은 벗을 나는 슬픔이 없이 기억한다. (벗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도 (나는) 그를 잃을 수 있는 듯이 대하였고, 이미 죽은 후에는 아직도 옆에 있는 듯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 Mihi defunctorum amicorum cogitatio dulcis est, habui enim illos tamquam amissurus, amisi tanquam habeam. **Senec.** Epist. 63.(p. 62). / 죽은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내게는 즐거우니, 그들을(비록)잃었지만, 지금도 함께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교우론 19장/ L'amico retto non sempre fa a voglia dell'amico ne' sempre gli contraddice: quando ha ragione, lo segue e quando non, gli risiste: 正友不當順友 亦不當逆友 有理者順之 無理者逆之.(영인본 7a)/ 진정한 벗은 항상 순응(찬성)하지도 않고, 항상 반대하지도 않는다. 도리에 맞으면 따르고, 무리하면 반대한다. <= Qui verus est amicus, is nec imitatur omnia, nec facile laudat omnia, sed optima tantum. **Plut.** ibid.(p. 59b)./ 진정한 친구는 모든 것을 따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쉽게 칭찬하지도 않으며, 오직 최선을 다(선택)한다. + per che il dir il vero e' proprio offitio dell'amico. 故直言獨爲友之責矣.(영인본 7a)/그러므로 직언을 해주는 것이 우정의 責務이다. <= Libertas loquendi propria amicitiae. **Plut.** ibid.(59b바로앞)./ (직언의) 말을 해주는 것(자유)이 진정한 우정이다.

교우론 20장/ L'amico e' come il medico, il quale in vero ama l'infermo et' odia l'infermita'. 交友如醫疾然 醫者誠愛病者 必惡其病也.(영인본 7a)/ 벗과의 교류는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의사는 병자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반드시 그 병을 憎惡한다. <= Amicus, vitae medicamentum. **Aug.** lib.6 de Civt. Dei.(p. 62) / 친구는 인생의 치료제이다. + Amicus similis medico, medicus non amat aegrotum, si non odit aegritudinem, ut aegrotum liberet, febrem persequitur. **August.** inquo serm.(p 62)/ 친구는 병을 좋아하지 않는 의사와 같은데, 의사가 병자를 구하고 열을 내리게 하려면 병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 Hor, s'il medico per sanar l'infermo non perdona al corpo, ma lo ferisce e gli da' il boccone amaro, l'amico perdonar' alli vitij dell'amico? =오! 의사가 병자를 구완하기 위해서는 그 몸을 사정없이 다루어,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 입안을 쓰게 만들기도 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친구의 죄악을 그냥 버려두어서야 되겠는가?

교우론 21장/ Ne' alle lode degli'amici ne' alli vituperij de gl'inimici si deve intieramente da credito. 友之譽及仇之訕 竝不可盡信焉. (영인본 7b). /친구의 칭찬이나 원수의 비방은 모두 다 믿지 말아야 한다. <= Amicus laudanti credendum non est, sicut nec inimico detrahenti. **August.** in sermo.(p 62)./ 친구의 칭찬도, 원수의 비방도 모두 믿을 바가 아니다. + Sicut nec inimico detrahenti, ita nec amico laudanti, credendum est. August. lib.3 cont. lit. petit. (p. 64)./ 원수의 비방처럼 친구의 칭찬 역시 믿어서는 안 된다.

교우론 22장/ L'amico verso l'amico sempre ha da esser l'istesso. 友者於友 處處時時¹而_기 己.(영인본 7b)./ 친구란 친구에게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아야 한다. <= cf. Inconstantia fastidit amicos. **Menand.** Apud Plut. de Amic. adulat.(우정과 아첨에 대하여, p 59b). 변덕은 친구들을 언더리나게 한다. // e certo non ho da far differenza s'egli stia lontano o presente o vicino; ne' hanno da esser differenti le parole dall'affetto dell'amico. 誠無近遠、內外面背、異言異情也(7b). 친구가 멀리 있건, 혹 앞에나 가까이 있건 간에, 내가 다르게 대할 바가 없고; 애정어린 우정의 말도 달라질 바가 없는 것이다.

교우론 23장/ L'amico che non mi fa nissun bene e' simile all'inimico che non mi fa nessun male. 友人無所善我 與仇人無所害我 等焉.(영인본 7b)./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친구나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원수나, 다 마찬가지다. <= Tantum diligo inimicum, qui mihi nihil facit mali, quantum amicum, qui mihi nihil facit bono. **Cassiodo.** in quad epist.(p. 63). /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친구만큼,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수를 나는 사랑한다.

교우론 24장/ Il male che fa l'amico col soverchio lodar' e' maggior del male che fa l'inimico colsoverchiamente biasmar, 友者過譽之害 較仇者過訾之害 猶大焉. (영인본 7b)./ 친구가 (나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해로움은, 원수가 지나치게 비난하는 해로움에 견주어 볼 때, 오히려 더 크다. <= Gravius me laedunt amici supra modum laudantes, quam inimici detrahentes. **Erasm.** in Epist.(p 62) / 친구들의 ^{과찬}過讚은 원수들의 비난보다 더 중하다(해롭다). // percio' che con le lodi dell'amico forsi diventaro' superbo et' li vitupperij dell'inimico mi possono servir per star piu' cauto. 友人譽我 我或因而自矜 仇人訾我 我或因而加謹. /친구의 칭찬 때문에 혹시 내가 교만할 수도 있고, 원수의 비난 때문에 내가 좀 더 조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우론 26장/ L'amico certo si vedra' chiaro nelle mie cose incerte. 友之定於我之不定事 試之可見矣.(영인본 8a)./ 확실한 친구는 내가 불확실한 사건(불행) 속에 있을 때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

교우론 28장/ Chi nel far amicitia solo attende al suo proprio utile et' non a quello dell'amico, questo si deve chiamar mercante, non amico. 交友使獨知利己 不復顧益 其友是商賈之人耳 不可謂友也. (영인본 8a)./ 벗과 사귀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 알고 친구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본래 장사치(賈人)일 뿐이지, 벗이라고 이를 수 없다. <= Si amicitiam ad usum referamus nostrum, non ad illius commodum, quem diligimus, non

erit ista amicitia, sed mercatura quaedam utilitatum suarum. Cicero 2. de nat. deorum.(p.61). / 우정을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이용하고, 상대의 편익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자기 이윤을 위한 장사(賣賈)치일뿐이다.

교우론 29장/ Fra gl'amici tutte le cose sono comuni. 友之物 皆與共. (영인본 8a)/ 벗의 모든 것(物)은 두루 공유해야 한다. <= cf. Omnia cum amico delibera, sed de ipso prius. Senec. epist.3(p. 60). / 모든 것은 자신이 미리 (정)하지 말고, (모두) 친구와 상의해야 한다.

교우론 33장/ Chi sopporta e dissimula gli vitij dell'amico fa suoi proprij gli peccati altrui. 忍友之惡 便以他惡爲己惡焉. (영인본 8b)/ 벗의 잘못을 (그냥 放置) 容忍하는 것은 곧 그의 죄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 cf. Amicus internus potest accusare de injuria illata amico suo: quia ipsius injuria dicitur. Cassiod. apud Jurisconsul.(p. 63). / 진실한 친구는 자기 친구의 불의를 지적할 수 있으니, 바로 (나) 자신의 불의이기 때문이다.

교우론 36장/ La relatione dell'amico con l'amico e' molto vicina a quella ch'e' tra fratelli. Pero gl'amici tra di loro si chiamano fratelli e quando sono buoni fratelli si dicono esser veri amici. 友於昆倫邇 故友相呼謂兄.(영인본 8b)/ 벗과 벗의 관계는 형제처럼 매우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벗들은 서로 형이라고 부른다. <= Evora 의 문헌에서는 그 출처를 아직 찾지 못하였으나, 부산교회사보 68호(2010) p. 83에서, 성 아우구스티노의 '사람과 사람은 모두 형제다'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교우론 37장/ L'amicitia e' piu' utile al mondo che la robba. 友之益世也 大乎在焉.(영인본 8b)/ 벗(우정)은 세상에서 재물보다 더 유익하다. <= cf. Nullus eligeret vivere sine amicis, habens omnia bona. Arist. Eth.8(p. 59). / 모든 보화는 소유하면서도, 친구들 없이 살기를 바라지는 마라.

교우론 40장/ Chi tiene molti amici intrinsechi, no' tiene nissuno amico intrinseco. 多有密友 便無密友也.(영인본 9a)/ 친밀한 벗이 많다는 것은, 곧 친밀한 벗이 없다는 것이다. <= Amici multi, amicus nemo. Arist. apud Diog. lib. 5 (p. 60). / 친구가 많다면, 그 누구도 (참된) 친구가 아니다.

교우론 45장/ La onde non e' gran' cosa esser fedele all'amico. 그러므로 친구에게 믿음보다 더 큰 것은 없다. 信于友不足言矣. (영인본 9b)/ 벗에 대한 신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 Amici, fide parantur. Sallust. de coniur. Catil.(p. 61b). / 친구들이란 (곧) 신뢰(믿음)와 같다.

교우론 49장/ Dopo che havro' fatta amicitia con alcuno, ogni mia faccenda ho da comunicare e consultar conlui; ma prima d'ogni altra cosa consultaro' degl'amici, ai quali mi debba appigliare. 既友 每事可同議定 然先須議定友.(영인본 9b)/ (누구와) 친구가 되었다면 매사를 (그와) 함께 의논하여 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름지기 친구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 Omnia cum amico delibera, sed de ipso prius. Senec. Epist. 3.(p. 60ab). =모든 일은 친구와 의논해야 한다. 그러나 친구 (선택)이 우선이다.(= 교우론 7장의 앞부

분이다.)

교우론 51장/ Solo i negotij di chi tiene amici possono tirarsi inanzi co'speranza di prosperi successi. 친구들과의 협의가 있어야만 기업 성공의 희망을 이끌 수 있다. 獨有友

之業能起.(영인본 309)./ 벗이 있어야 基業이 흥할 수 있다. <= Ubi amici, ibi opes.

지 업 능 기 기업

교우론 64장/ 64장의 이태리어 원문은 없다. 我榮時請而方來 患時不請而自來 夫友哉.(영인

본 11a)./ 내가 영화로울 땐 불러야만 오고, 내가 憂患 중에 있을 때는 부르지 않아도 오는

그가 바로 친구이다. <= Amici secundis in rebus advocati adsint: in calamitatibus autem sua sponte, atque invocati. Demosthe.(60)./ 친구들이란 (내가) 잘 나갈 땐 불러야 오지만, 患難 중에 있을 때는 부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온다.(교우론 5장 참조).

교우론 75장/ 75장의 이태리어 원문은 없다. 務來新友 戒毋誼舊者.(영인본 12b)./ 새 친구

를 만드는데 힘쓰더라도, 옛 친구와의 友誼를 버리지 마라. <= Amici novi veteribus non sunt antepoenendi. Cic. in laelio. (61b). / 새 친구들을 옛 친구보다 앞세워서 안 된다.

교우론 76장/ L'amico e' la robba del povero, la forza del fiacco et' la sanita' del amalato e serve a ciascuno secondo il suo bisogno. 친구란 가난한 자의 재산이요, 쇠약한

이의 힘이며, 병자의 치료제로서, 누구에게나 각자의 소용에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友也 爲 貧之材 爲弱之力 爲病之藥焉.(영인본 12b)/ 벗이란 가난에 재산이요, 쇠약에 힘이요, 병에 치

료약이다.

교우론 78장/ 78장의 이태리어 원문은 없다. 仇之饋 不如友之棒也.(영인본 13a)./ 원수의 음

식(供饋)은 친구의 몽둥이질만도(打棒) 못하다. <= cf. Praestat ridiculus amicus, quam gravis inimicus. Plutar. de pulch.(59)./ 근엄한 원수보다는 어리석은 친구가 더 낫다. + Hostium dona non sunt dona. Demosth. in arg. lib.(p. 46b, 71b)./ 적들의 선물은 선물이 아니다.

교우론 98장/ Nella Scithia, ch'e' un Regno nel Settentrione, e' un costume che non chiamano ricco se non chi tiene molti amici. 북방 왕국 **쉬티아**에 한 풍습이 있어, 많은 친구를 갖지 않으면 부자라고 하지 않았다. 是的亞(是北方國名) 俗獨多得友者 稱之謂富也.

(천학초함 영인본 319). 19)

교우론 99장/ Creso, che fu un Re nell'Occidente, d'huomo privato ch'era, ottene un gran Regno. et' essendogli da un savio domandato per che causa piu' si rallegrasse d'haver quel Regno, rispose: "Per che posso far bene agl'amici et nuocer agl'inimici." Allora disse il Savio: "Meglio sarebbe far bene agl'amici et con beneficij guadagnarsi anco gl'inimici." **크레소**는 필부로서 서방의 큰 왕국을 차지한 왕이 되었는데, 현자에게 ‘어떤 것이 왕국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왕은) 대답하기를 “친구들

19) 로마 예수회의 고문서고 영인본에는 14b-15a(1장)이 누락되어 있어, 천학초함 영인본, 羅光 主教, 중화민국 53년(1964) 臺北市발행을 인용한다.

에게는 잘해주고, 원수들에게는 양값음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즐겁다고 하였다. 그러자 현자가 이르기를,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원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친구를) 얻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였다. 客力所(西國王名) 以匹夫得大國 有賢人問 得國之所行大旨 答曰 惠我友報我

仇 賢曰 不如惠友而用恩 俾仇爲友也.(영인본 15b).
구 현 왈 불 여 혜 우 이 용 은 비 구 위 우 야

교우론 100장/ Megapito, filosofo molto famoso, mentre rompeva un gran pomo granato gli fu domandato di che cosa desidererebbe haver tanti, quanti erano i grani di quel Pomo. Rispose: " Di fedeli amici ". 저명한 철학자 **메가피토**가 씨앗이 든 큰 석류를 가르자, 어느 누가 질문을 하였다. ‘석류의 씨앗이 이토록 많은데, 무엇을 이만큼 많이 갖고 싶은가?’ (메가피토가) 대답하기를, “ 믿음직한 친구들을 (이만큼 얻고 싶다).” 墨臥皮(古聞士者)

折開大石榴 或人問之曰 夫子何物願獲 如其子之多耶? 曰忠友也.(영인본 15b).
절 개 대 석류 혹 인 문 지 왈 부자 허물 원 획득 여 기 자 지 다 야 왈 충우 야

5-1. [교우론]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간관계 중 친구관계를 (하느님)상제께서 내려준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상제께서 두 개의 눈(上帝給人雙目), 두 개의 귀, 두 개의 손, 두 개의 발을 주신 것은, 서로 도와 일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56장). “ 각 사람은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사귀며 서로 도우라고 명령하셨다. (故上帝命之交友). 만약 세상에서 이 道(友情)가 없어진다면, 인류는 반드시 흩어져 무너지게 될 것이다.”(16장)고 하였다. 20)

5-2. 이같이 우정을 하느님께서 명하신 인간의 기본관계로 보면서,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성 아우구스티노와 치체로의 격언을 약간씩 변용하고 있다.

“友於昆倫邇 故友相呼謂兄 而善於兄弟爲友” (교우론 36장/ 영인본 8b). ‘벗과 벗의 관계는 형제처럼 매우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벗들은 서로 형이라고 부른다. 형제보다 더 좋은 것이 벗이다.’ 이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사람과 사람은 모두 형제다’에서 온 것이다. “벗이 피붙이 보다 낫다. 피붙이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친구관계는 <서로 사랑이 없을 수 없어> 그렇지 않다), 무릇 피붙이들 간에는 사랑이 없더라도 피붙이 사이에 윤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벗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찌 우정의 도리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교우론 50장 / 영인본 9b) = 友於親 惟此長焉. 親能無相愛 親友者否. 蓋親無愛親 親倫猶在. 除愛乎友其友 理焉存乎? 이는 치체로의, ‘친구가 가족보다 귀하다. 가족은 사랑이 없을 수 있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다. 사랑이 없으면 그 즉시 친구가 되지 못하나, 가족은 여전히 가족이기 때문이다.’ 에서 왔다고 한다. 21)

20) 天主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문헌상으로는 여기서 처음으로 上帝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천주실의]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FR. N 246 참조.

21) 沈定平, 이경규외 번역, 明清之際中西文化交流史 XIII, 2010 부산교회사보 68호, p. 83.

6. 교우론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6-1. 유몽인(1559-1623)은 [교우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중국의 [小窓記]와 [續耳譚]에 利瑪竇에 관한 사적과 利瑪竇가 지은 [友論] 및 [銅渾儀], [坤儀], [輿圖八幅] 등이 실려 있는데, 매우 상세하다.’ 22)

‘天竺의 서쪽에 나라가 있어 歐羅巴라고 하는데, 구라파란 그 지역 말로 “커다란 서쪽 大西”이란 뜻이다. --그곳 풍속은 혼인하는 것을 숭상하지 않고, 평생토록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택해 君長으로 삼고, 教化皇이라고 부른다. 천주의 뜻을 이어받아, 가르침을 베풀고 세상을 깨우치는데, 세습하지 않고 현자를 택하여 세운다. 또한 자녀가 없이 오직 백성들을 자식으로 삼는다. --그 선비(修士)는 친구 간의 사귀음을 중히 여기고 (其士重朋友之交), 대다수가 천문과 별자리에 정통하다.’ 23)

6-2. 이수광(1563- 1628)도 지봉유설에서, 마태오 리치 신부가 지은 [천주실의]와 [교우론]을 중우론이란 이름으로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歐羅巴國을 大西國 이라고 이름 하기도 한다. 利瑪竇라는 자가 있어서, 8년 동안이나 바다에 떠서 8만리의 풍랑을 넘어, 돌월에 와서 십여 년이나 살았다. 그가 저술한 [천주실의] 2권이 있다. --또 그 풍습에는 우의를 소중히 여기며 사사로운 저축을 하지 않는다. 그는 [重友論]을 지었다. 焦竑이 말하기를, “서역사람인 이군이 <벗은 제 2의 나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매우 기이하다”고 하였다. 이 일은 [속이담]에 자세히 보인다.’ 24)

6-3. 성호 이익(1682-1763)은 신후담과 안정복, 권철신 등, 후학을 양성하여 기호 남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마태오 리치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았고, 리치 신부를 일러 ‘참으로 성인이다’고 할 정도로, 천주교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한편, 리치의 저술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글이 [교우론]이었다.

‘집에 1권의 외국서적 [교우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친구는 제 2의 나다. 몸은 둘이나 마음은 하나다. 읽기를 모두 하니, 이는 뼈를 찌르는 이야기이다. --그 책에 또

22) 유몽인 지음, 신익철, 이형대, 종용희, 노영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14년 4판, p. 216.

23) 유몽인 지음, 앞의 책, p. 214.; 노용필, 앞의 책, p. 46.

24)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3, 서학.; 벽위편, 이지봉의 유설.; 노용필, 앞의 책, p.19.

말하기를, 孝子が 父의 交友를 잇는 것은 産業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그 말은 진실하고 확실하니 가히 생각할만하다.’ 25)

6-4-1. [교우론]은 북학파의 **홍대용(1731 - 1783)**,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의 마음을 열어, 조선 사회에 파격적인 벗 사귀음을 만들어 나갔다. 이들의 사귀음은 [교우론]에 있는 ‘벗은 제 2의 나’라는 기이한 말을 통해, 신분과 문화, 국경을 초월한 수평적 인간관을 낳고 있었다. 북학파는 耶穌教 교리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26)

6-4-2. 답헌 **홍대용**을 取捨하며 학문적으로 교류하던 **초정 박제가(1750- 1805)**는 답헌이 연행에서 귀국하자(1766년), 즉시 찾아가 **홍대용**을 만났다. 27) 박제가 역시 북경을 4차례나 다녀왔으며, 28) 정파가 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덕조(벽)에 대한 추도시를 지어 남겼다. 29) 그가 이벽을 이토록 그리워하였던 것은 어려서부터 봉선사에서 함께 공부한 친우였기 때

25) 성호선생문집 상, 1974 경인문화사, p. 533 ; 순암집 제 6권, 권기명에 답하는 갑진년 편지에서도 칠극을 두고, ‘뼈를 찌르는 듯한 절실한 내용’이라 하고 있다.; 노용필, 앞의 책, 51.

26) 최상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2012 돌베개, p. 94.

27) 박제가 연보, p. 557.; 서자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사회적인 차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봉건적인 신분제도에 반대하는 사상을 전개하였고, 남인인 정약용과도 친교를 맺었다(정약용의 종두설 참조).

28) 박제가는 1778년에 채제공의 종사관으로 1차 연행 중 북경성당을 방문하였고, 2차는 서호수의 종사관으로 1790년에, 곧 이어 3차는 1791년에, 유득공과 함께 4차 여행을 1801년에 하였으나, 귀국 후 9월에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었다.(서학과의 관련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29) 이(덕조)벽에 대한 추도시에 대하여, 소순태 교수의 문답 1814번을 다음의 주소에서 참조하라. http://bbs.catholic.or.kr/home/bbs_view.asp?num=170&id=28233&Page=9&menu=question_and_answer; 정민의 옮김, 정유각집 상, 2010 돌베개, p. 519./앞으로 이책을 정유각집으로 약칭.

박제가, [정유각집], 四悼詩, 李德操 藁 (위 소교수의 문답을 바탕으로 정리함)

진(晉) 나라 사람들은 名理(清談家의 이론)를 숭상하여, 晉人尙名理, 진인상명리

청담은 그 세대(厥世)를 어지럽혔으나, 清譚亂厥世 청담난갈세

德操(李驥)는 天地와 四方(육합)을 의논하였으니, 德操議六合, 덕조의육합

그대 어찌 實際의 떠남을 경험하였겠는가? 何嘗離實際 하상이실제

匹夫는 시대의 풍속이나 관계하고, 匹夫關時運 필부관시운

무너진 집이 (그들의) 經濟를 뜻하였었지! 破屋志經濟 파옥지경제

그대의 심장 가운데에는 커다란 선기옥형(혼천의)이 있어, 胸中大璣衡 흉중대기형

(그대에게) 四海는 홀로 닦아 도달한 수양(孤詣)이었다라. 四海一孤詣 사해일고예

각 사물은 그 본성을 알려주고, 物物喻性體 물물유성체

각 형상(形形)은 比例를 밝혀 주도다. 形形明比例 형형명비례

가장자리 멀리에 있는 거칠고 궁벽한 땅이 아직 열리지 않음을, 鴻荒諒未開 홍황양미개

(그대는) 세심하게 살펴, 名言이 서로 사귀어 두터워지게 하였도다. 名言孰相契 명언숙상계

하늘 바람은 재주 있는 선비를(鸚鵡) 내어, 天風吹鸚鵡 천풍취앵무

그(새)들의 춤추며 나는(翻) 성공을 담아서(籠) 이루게 하도다. 鸞成出籠計 번성출농계

군색한 오두막집은 (그대의) 못다한 꿈(殘夢)을 분산시키고, 遽廬罷殘夢 거려파잔몽

靑山은 (그대의) 靈妙한 智慧를 장사지내는구나! 靑山葬靈慧 청산장영혜

봄가를 오고 가는 세월은 잠시도 쉬지 않으며, 春秋不暫停 춘추부잠정

문이었을 것이다. 30)

6-4-3. 홍대용의 부탁으로 박지원은 [회성원집 발문]을 썼는데, 이는 [교우론] 1장과 56장의 영락없는 판박이었다. “옛날에 봉우(朋友)를 말하는 사람들은 봉우를 ‘제 2 의 나’라 일컫기도 했고, ‘주선인(周旋人)’ 이라 일컫기도 했다. 이 때문에 漢字를 만드는 자가 날개 우(羽) 자를 빌려 벗 봉(朋) 자를 만들었고, 손 수(手) 자와 또 우(又) 자를 합쳐서 벗 우(友) 자를 만들었으니(𠄎), 봉우란 마치 새에게 두 날개가 있고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31)

6-4-4. 이같이 홍대용과 박지원이 [교우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삼강오륜에 나타난 수직적 봉건사회의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삼강오륜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봉건사회의 윤리관 속에서, 수평적 관계인 봉우는 오륜의 제일 마지막 항목이었고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박지원은 자신보다 4살 어린 이덕무와 벗으로 통했으며, 열두세 살 아래인 제자 박제가(1750-1805), 유득공 등과도 허물없이 지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은 모두 서자 출신이었다. 박제가는 이때의 허물없는 사귀를 기리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시와 편지를 모아 [백담청연집]을 남겼다. 32) 양반 가문 출신의 홍대용과 박지원은 참된 [교우론]을 알았기에, 서러움을 받는 庶出의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과 함께 제 2의 나로 친구처럼 지냈다. 그 때의 편지 및 시문을 간추려, 벗의 우의에 대해 야박한 자들에게 경계로 삼기 위해,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를 남기기도 했다. 33)

6-5. 그러므로 이들은 정파가 다른 남인파의 이벽과도 친구처럼 지냈기에, 이벽이 홍대용에게서 [천학초함]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cf. 이벽전), 이벽의 순교 후에는 박제가의 [사도시]가 작성될 수 있었다. 또한 이들과 교류하였던 이재 황윤석(1729-1791)은 무술년인 1778(정조2)년 11월 26일에, 이덕무에게서 들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이덕무가 말하기를, “요사이 서울 안에 서학과 수리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자로 서명응과 그의 아들 서호수가 있는데, 또 이벽이 있으니, 바로 무인 이격의 동생입니다. 그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으며 사람됨이 고결한데, 지금 저동에 살고 있습니

각종 변화 속에 죽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네.
긴 휘파람 소리(高聲囓歌)에 날아가는 기러기(그대)를 보내노니,
하늘도 땅(乾坤)과 함께(雙) 눈물을 삼키는구나(暗)!

万化無非逝 만화무비서
高囓送飛鴻 고소송비홍
乾坤暗雙涕 건곤암쌍제.

30) 정유각집 중, p. 388-歷奉先寺余童子時讀書處也; 이벽전, -상천도를 작하여 봉점사 춘파대 사당 증.

31) 연암집 제3권,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회성원집(繪聲園集)》발문.

32) 백담은 현재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지(圓覺寺址)의 석탑(白塔)을 가리킨다.

33) 이덕무, 청장관전서 제63권,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 정유각집, [관헌 서상수에게 주다] 참조.

다. 또 정후조가 있으니, 바로 문관 정철조³⁴⁾의 동생입니다.” 고(1778) 하였습니다.’³⁵⁾

또, ‘내가 나군(나동선, 敬汝 1743- 1777 진사)에게 묻기를, “지금 세상의 도성 사람들 중에 또한 총명하고 뛰어난 선비가 있는가?”라고 하니, 나군이 대답하기를, “이벽이란 자가 있는데, 월천군 이정암의 후손이고, 병사 이달의 아들(손자)이며, 이벽의 형(동생)입니다. 어려운 글 열 줄을 한꺼번에 보면서 비호같이 읽어 내려가고, 동시에 눈 하나로는 위를 보고 다른 하나로는 아래를 볼 수 있고, 하나로는 왼쪽을 보고 다른 하나로는 오른쪽을 볼 수 있습니다. 체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 한번 뛰어올라 공중에서 3회전할 수 있으며, 두 질을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 평소 서양의 <천주실의>를 몹시 좋아하여, 한때 그 무리의 으뜸이 되었는데, 나이 30에 요절하였습니다. 근년에 임금이 서양의 학문에 대해 율. 역. 수. 종류 이외에 천주실의의 학문을 하는 자들로부터, 형조에서 그 책들을 거둬들여 불태우고 경향에 엄히 금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군이 당시 세자익위사의 별전에 들자(동생인 이석과 혼동?) ³⁶⁾ 상소하여 천주의 설을 스스로 아뢰었습니다.”라고 하였다.’(1786년). ³⁷⁾ 또한, ‘북극고도가 한양은 37도 15분이고, 위원(위원이 지칭한 것은 북경음?)은 40도 51분이다. 예전에 이벽에게 들었는데, 백두산은 42도 남짓으로, 봉조하 서명응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였다.’ ³⁸⁾

7. 답헌 홍대용과 이벽의 교우관계 ³⁹⁾

7-1. 답헌 **홍대용(1731 - 1783)**은 ⁴⁰⁾ 현 남양주시의 미음나루 근처에 있는 석실서원에서 ⁴¹⁾ 미호선생(溪湖先生) 김원행(金元行,伯春)에게 사사(師事)하였다. ⁴²⁾ 석실서원의 위치는 이벽이 천진암과 두미에 머물 때 서울과 포천을 왕래하던 길목에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1770년대에 홍대용을 찾아 만나 볼 수 있었다고 여겨지며, 또한 책도 빌려서 필사하여 간직할 수 있었다고 본다. 홍대용은 애초 김원행이 중히 여기던 제자였고, 영조 말년 書筵에 낙론
서연

34) 정철조는(1730-1781) 홍대용과 함께 김원행의 제자로서 석실서원에서 동문수학하였고, 이가환과는 서로 쌍 처남 매부간이며, 여주의 화가 이희영 순교자의 스승이다.

35) 황운석, 이재난고 27책 무술(1778) 11월 26일 임자. /= 서종태, 이벽의 서학탐구와 서울거처 및 천주교 수용시기, <이벽 새벽을 열다>, 2015.9.24 심포지엄에서 재인용.; 동생 정후조(해주 정씨 1738-1777생원)는 북학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이벽과 교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6) 일성록 1795, 6. 18 자궁에게 진찬하였다. /(해경궁 회갑연)에, 내외빈상 숙설소(內外賓床熟設所)를 보정문(保定門) 북쪽 월랑(月廊)에 설치하였다. 당상은 판돈녕부사 서유린(徐有隣), 돈녕부 도정 윤행임(尹行恁)이, 장관(將官)은 전 승지 이진수(李晉秀), **별군직(別軍職) 이석(李皙)**.

37) 황운석, 이재난고 38책 병오(1786) 5월 5일 정미. /= 서종태의 앞의 글에서 재인용.

38) 성대중, 청성잡기 권5, 성언, ‘백두산의 위도’ /= 서종태의 앞의 글에서 재인용.

39) 이경구, 답헌의 지식인교유와 지성사적 위치, [답헌 홍대용 연구], 2012 성균관대학교 참조. / 앞으로는 이 책을 ‘홍대용 연구’로 약칭한다.

40) 남양 홍씨. 자는 덕보, 호는 답헌, 천안 수신면 장산리 수촌에서 태어났고, 묘도 그곳에 있다.

41) 현재 남양주시 수석동에 위치하며, 구산성지의 강 맞은편에 나룻터가 있던 곳으로, 서울에서 신부님들이 판공을 다닐 때, 양주 지역의 판공 이후, 미음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신부님의 미사 집을 받아서 구산으로 모셔왔다는, 부친(김완식)의 이야기를 필자는 들을 수 있었다.; 정약용의 시문집 3권(단오일배이형유천진암 직전의 시), 乘小艇泝流, 宿溪陰村.=그러므로 정약용은 1797년 5월 단오일에 천진암에 오기 직전에 미음에 머물렀다.; 1922. 8. 7일자 정규하 신부의 편지에서, 다니는 경로를 보면, 서울 -> 미음벌 -> 덕소 -> 마내(용문) -> 풍수원의 길을 가고 있다.

42) 홍대용, 답헌서 내집 3권, 서(書), 미호 선생 김원행에게 올리는 편지[上溪湖先生金元行書] 참조.

을 대표하는 신진 학자로서 세손(정조) 교육(1774/5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43)

7-2. [이벽전]에서는, 이벽이 ‘홍(대용)군사로부터 [천학전함]을 전수하여’ 天學^{천학} 공부에 몰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담헌 홍대용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내용은, 이제까지의 연행일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홍대용의 부연사행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청 관계에 있어 시각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홍대용의 연행일기에서 비롯되었다. 홍대용은 북경의 남당과 동당 성당을 찾아, 4차례에 걸쳐 그곳의 예수회 신부들을 만나 볼 수가 있었고, 이들의 과학과 종교에 대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에, 후에 고금도서집성 5,020권의 책을 정조 즉위 직후인 1777년에 은자 2,150냥을 주고 수입하여, 열람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44) 이 가운데 [천학초함]에 들어 있는 책을 이벽이 빌리거나 복사하여 공부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후에 정약용도 이렇게 도입된 책들 가운데서, 정조가 내려주는 [기기도설]을 보고 응용하였다. 45) 이규경도 언급한 이 [기기도설]에는 기계의 조작과 설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造物主^{조물주} 천주가 天地^{천지}를 만드신 후, 인류의 시조인 亞當(아담)과 厄禰(하와)^{악말}을 만드시어 地堂^{지당}에 두셨으나, 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아 得罪^{득죄}함으로써, 남자는 耕田^{경전}하는 勞苦^{노고}를 해야 하고, 여자는 生育^{생육}과 艱辛^{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했다. 아담은 耕田^{경전}에 사용 하기 위해 器物^{기물}을 만들기 시작하였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46)

7-3. 홍대용은 서장관이 된 季父^{계부} 홍익을 따라서 자제군관 자격으로 1765년 11월 2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12월 27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1766년 정월 초하루 조참례에 참여하여, 만주어로 행하는 의례 소리를 들으며 연행을 시작하였다. 47) 음악과 관련하여 담헌이 북경에서 목격한 경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월 9일에 남천주당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파이프오르간을 직접 연주까지 해보면서, 서양문물을 상세히 접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

43) 홍대용, 담헌서 내집 2권, 계방일기(桂坊日記). ; 홍대용 연구, 2012 성균관대학교, p. 356.
 44) 정조 1년(1777). 2. 24. 참조 - 정사 이은, 부사 서호수 등이 장계를 올려 그간의 상황을 알리다. 이후 동지 겸사은 정사 정존겸 등이 지난 해 봄에 완성된 <사고전서>를 (3만 6천권에 총목만 2백권) 구입하여 들여오고 있다.(1783. 3. 24.) 이어서 사은사 서장관 이정운은 (1785. 4. 19.) 이미 수입한 四庫全書 3만 6천권의 장서를 4부로 베껴서, 문원각, 문원각, 문진각, 문소각에 갈라서 보관한다.
 45) 다산시문집 10권, 城說 - 글이 올려지자 임금의 비답이 융중(隆重)하셨는데 ‘웅성(甕城)·포루(砲樓)·현안(懸眼)·누조(漏槽) 등의 제도와 기중(起重)의 모든 설(說)을 빨리 강구하라.’ 하고, 인하여 1권(卷)으로 집성(集成)된 내장도서(內藏圖書)를 내리시니, 이는 곧 《기기도설(奇器圖說)》이었습니다.
 46) 耶穌會士 鄧玉函 口授, 景教後學 王徵 譯繪, 遠西奇器圖設錄崔卷第1, p. 13ab.: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소순태 교수가 찾아내어 필자에게 제공한 [기기도설] 전문을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76-1630_요한_테렌츠&왕징/1627_원서기기도설특회권제
 47) 홍대용, 담헌서 외집 8권, 연기, 경성기략 -북경 관(館)에 머물러 있는 62일 동안에, 돌아다니며 구경한 날이 33일이었다; 홍대용 연구, p. 292.

렇게 홍대용은 서양 과학을 새롭게 발견하고, 비로소 그 중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홍대용의 중국여행은 그의 사상 형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에서 사권 몇 명의 인물들과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cf. 교우론) 나눔과 동시에 학문적인 교류를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담헌은 정주학만이 아니라, 양명학, 西學(천주교), 불교, 제자백가도, 모두 진리를 일정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사상전개의 국면에서 유교를 벗어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유교가 강조하는 차별과 차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평등'을 사상적 지향점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48)

7-4. 홍대용 주위의 지식인들 가운데, 잘 알려진 그룹은 이른바 연암 박지원 일파이다. 연암 그룹은 담헌과 연암을 중심으로, 선배로는 김용겸, 원중거가 있었고, 후배로는 초정 박제가, 형암, 영재, 이서구 등이 있었다. 원중거가 1763/4년에 일본을 사행하고 기록한 [승사록] 과 [화국지]는 담헌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원중거는 일본 문화를 상세히 전하며, 그들의 시문용성, 서적유통 등을 높이 평가하여 '해중문명'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49) 홍대용이 원중거를 취사했던 것처럼, 연암 박지원과 초정 박제가(1750-1805)는 홍대용을 취사하였다. 특히 박제가는 급진적으로 문명의 위계를 세우고 중국의 선진성을 수용하고자 했고, 문물교류 지향을 서양으로까지 확대시켜, 서양 선교사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50) 초정은 다산 정약용과 절친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 천주교 창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벽을 경제의 선비이자 사물의 본성을 깨우친 이로 평가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시를 써서 남겼다.

7-5. 김원행 문하에서 홍대용과 동문이었던 정철조(1730-1781)는 성호 이익의 조카이자 이가환의 부친인 이용휴의 사위였다(=정철조는 이가환과 쌍 매부처남). 이가환의 부친 이용휴의 집에는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기하원본]이 소장되어 있었으며, 이가환은 매부(동시에 처남) 정철조로부터 [수리정온]을 빌려보기도 하였고, 황윤석은 정철조로부터 [역상고성]을 빌려 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정철조를 매개로 담헌 등 연암 일파와 성호학파의 학문적 교류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생전의 홍대용은 성호사설을 소장하여 읽은 듯하다. 연암일파와 이가환 등과의 교류는 홍대용의 사후에(1783) 더욱 긴밀해졌다. 그중 초정 박제가는 가장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하였다. 박제가는 자신과 절친했던 친구 60인을 기린 시(戲傲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에서, 정철조와 이용휴, 그리고 이가환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노래하였다. 51)

48) 홍대용 연구, p. 108

49) 홍대용 연구, p. 358; 원중거, 화국지, 2006 박재금 역 ; 원중거, 승사록, 2006 김정숙 역 참조.

50) 박제가, 정유각집 권 3, 병오정월22일; 박제가 년보, p. 563.

51) 정조 2년 무술(1778, 건륭 43) 2월14일, 승문원 정자 이가환을 불러 질의하다.; 홍대용 연구, p. 362.; 심경호의 여유당전서, 시집 해제에서, 정약용은 해배 후, 권영좌(권진이 아가다 성녀의 부친으로 대세를 받고 선종하면서, 권영좌가 부인 한영이 성녀와 딸에게 신앙을 권유한 까닭은 정약용의 영

7-6.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는, 조선 후기 서양화법의 효시라고 하는 이희영(1756-1801)⁵²⁾의 犬圖_{견도}가 소장되어 있다. 이희영의 견도는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서 장식용으로 가져온 서양화와 북학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희영의 스승인 정철조(1730-1781)는 1772년 이후로,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 학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문학과 예술, 실용적인 학문 등을 연마했다. 그는 서양 과학 서적을 연구하여 천문관측이나 역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예를 갖추었다. 또한 정밀한 그림에도 뛰어나 정조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⁵³⁾

8-1. 그러나 성호의 제자들 대에 이르러서, 안순암(1712-1791)은 천학교에서, 衆_중緯_위(천문역법)와 句股_{구고}(기하학)의 술법 이외에는, 무조건 모두 서양의 이론이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기경(1756-1819)은, ‘저들은 父子_{부자}, 君臣_{군신}, 夫婦_{부부}의 인륜을 중히 여기지 않고, 다만 友誼_{우의}를 존송하니, 이미 재물과 여자를 서로 유통하여 쓰는 기미가 있었던 것’이라며, [교우론] 마저 왜곡시켜 비하하고 있다.⁵⁴⁾ 또한 거상중의 이기경은 상소(cf. 김시준역 벽위편 150) 때문에 귀양을 가서 尋眞曲_{심진곡}을 작성하였는데, 이벽의 천주공경가의 ‘어화세상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소’에 대비하여, ‘길-가는 안해들아 --이내말씀 듣고가소’로 대꾸하였다. 한편 신돈와(신후담)의 서학변에서는 갑진년에⁵⁵⁾ 이미, [영언여작]과 [천주실의], [직방외기] 등의 내용을 장황하게 비판하면서도, [교우론]은 다루지 않았다.

8-2. 신해박해(1791) 중에 올린 이기경의 상소에, 이기경 본인과 채제공(1720-1799) 역시 [천주실의]를 읽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⁵⁶⁾ 초정 박제가는 1778년 1차 여행에서 채제공의 종사관으로 수행을 하였었다. 박제가 역시 이때를 전후하여 [천학초함] 전권을 읽은 것으로

향일 가능성이 많다.) 진사와 교류했다.
 52) 추안급국안 1801. 3. 17. 이희영 심문에서, 김건순의 양부가 저를 자식처럼 여겨 10년을 함께 살았고, 이희영을 화가 李秋燦_{이추찬}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덕무라고 하였다.
 53) 황사영 백서, 64행: 정조 5년 1781. 9. 4.; 일성록 1791. 9. 4; 최상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p. 126.; 윤사연 집, 벽위신편 참조.
 54) 벽위편, 안순암의 천학문답.; 일성록 1795. 7. 24. 천주교인들은 ‘아버이를 버리고 벗을 중시.’
 55) 김시준역, 벽위편, 신돈와의 서학변 참조. -이승훈이 북경에 다녀온 해가 1784 갑진년이므로, 벌써 60년 전 갑진년에 이렇게 비판을 늘어놓고 있다. 혹자는 甲辰의 글자가 甲戌과 비슷하므로, 갑진년인 1724년이 아니라 1754년의 갑술년이라 주장하기도 한다.(cf. 홍이섭, 실학의 理念的一貌, <인문과학>1집, 1957. 12.).
 56) 김시준역, 벽위편, p. 151, 153.

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벽의 순교 후, <1786년 1월 22일 朝參시에 박제가가 품었던 생각> 속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조참

“신이 듣기에, 중국의 흠천감에서 역서를 만드는 서양 사람들은 모두 기하학에 밝고 이용후생의 방법에 정통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관상감 한 부서를 운영하는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초빙하여 머물게 하고, 나라의 인재들로 하여금 천문과 천체의 운행, 악기나 천문관측기구의 제도, 농잠, 의약, 기후의 이치 및 벽돌을 만들어 궁궐과 성곽과 다리를 짓는 방법, 구리나 옥을 채굴하고 유리를 구워내는 방법, 화포를 설치하는 법, 관개하는 법, 무거운 것을 멀리 옮기는 기술을 배우게 하십시오.(천학초함, 기편). -- 신의 생각에 그들 무리 수십 명을 한 곳에 거처하게 하면, 난을 일으키지 못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도 벼슬도 하지 않고 모든 욕망을 끊은 채, 먼 나라를 여행하며 포교하는 것만을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천당과 지옥을 독실하게 믿어 불교와 차이가 없지만, 후생의 도구는 불교에는 없는 것입니다.(천학초함, 리편). 열 가지를 가져오고 그중의 하나를 금한다면, 옳은 계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저들에 대한 대우가 적절치 않아, 불러도 오지 않을까 염려될 뿐입니다.” 57)

병오소회를 읽은 3일 후, 정조는 선대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쟁장록] 수정작업에 참여할 명분으로, 박제가를 승진시키라는 어명을 내려, 박제가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58) 그로부터 10 여년이 지난 후, 정조는 박제가의 간청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왕이 북경에 있는 서양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럽과 교류하고 서양신부를 영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59) 그러나 정조가 48세 라는 젊은 나이로 갑자기 운명함으로써, 60) 박제가의 주장처럼, 서양신부를 초빙하여 개혁을 추구하려던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제가는 이와 같이 서양 선교사들을 등용하여 그들의 과학과 기술을 배우자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까지 이렇게 건의하고 있으며 61), 정약용과 더불어 종두법을 함께 연구하는 등, 이들은 봉당을 초월하여 실용적인 교류를 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교류로 미루어 보아, 이벽 역시 박제가의 스승 격인 홍대용을 만나서 연행사실을 듣고 배웠으며, [천학초함]도 전수하여 보았다는 ‘이벽전’의 내용이 -(부연사 홍(대용)군사로써 천학전함을 증수하여 몰독주야하시더니)- 사실임

57) 일성록, 1786. 1. 22.; 정조 10년 1786. 1. 22.; 정유각집 하, 2010 돌베개, p. 198 - 199; 당시에 이 단락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이본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 것도 있다고 한다.; 다산시문집 제10권, 설(說), 성설(城說); 起重圖說; 목민심서; 자찬 묘지명(自撰墓誌銘) 집중본(集中本); 성호전집 55권, 제발(題跋),(跋天問略); 박지원, 열하일기, 일신수필, 車制참조.

58) 일성록, 정조 10년 1786. 4. 25.

59) 윤민구역주, 시북자료집 5, 2000 수원교구 시북시성 추진위원회, p. 120 - /' ma ben per capirle bisognerebbe aver letto cio, che sette o otto anni fa, fu mandato in Europa La lettera del Re di Corea conferma tutto cio che fu detto della fermezza dei nuovi Cristiani, del zelo e dei sorprendenti progressi della Religione.' (=번역: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7,8년 전에, 조선 왕의 편지가 유럽에 보내진 내용으로 보면, (조선의) 새 신자들이 굳건함과 열정으로 놀라운 발전(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0) 다산시문집 제17권 /고금도(古今島) 장씨(張氏) 딸에 대한 기사(紀事)에서, 정약용은 장씨의 입을 빌려, “시상(時相)이 역의(逆醫) 심인(沈鎭)을 천거하여, 그에게 독약을 올리게 하였다.”고 한다.

61) 박제가, 정유각문집 권3, 병오정월이십이일. / =東道西器論적인 생각이다.

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벽전]에서 이벽이 홍(대용)군사로 부터 [천학전함]을 전수하여 천학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62)

8-3. 이이명(1658 - 1722)은 숙종 때 영의정까지 지내다가 숙종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고부사로 북경에 가면서 이기지(1690 - 1722)를 자제군관으로 대동하였던 노론의 거목이었다. 1795년에 노론이 耶穌교를 믿는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 등 남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소를 올렸을 때, 정조는 ‘야소교가 유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이명의 편지를 인용하여 남인을 보호하였다. 63) 정조가 평택 안핵어사로 파견한 김희채(1744-1802)는 본관이 청풍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노론이었으나, 그는 이동욱의 從孀였고, 이승훈이 평택 현감으로 있으면서 3년 동안 공자의 사당에 참배하지 않은 사실을 엄폐하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報告 선상에 있던 승지도 이동욱의 從兄 이동현이었다. 64) 이밖에 소론에서도 정파를 초월하여 姜世晷의 아들 姜彝天이 천주교를 수용하였고, 65) 안동 김문의 봉사손이었던 노론의 金健淳과 그의 族兄 金伯淳이 천주교를 신봉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김건순은 제사문제로 권철신과 교류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천주교 신자로서 순교까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6) 노론 명문 집안 출신인 김건순은 이미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리치 신부의 [기인십편]을 통해 일찍부터 천주교를 알고 있었다. 그는 양근(감호)으로 권철신을 찾아가 교리를 배웠고, 1797년에는 주문모 신부의 편지를 받고 서울로 찾아가 요사팻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김건순은 이후 친척과 친구들에게 신앙을 전파하여, 여주에서 이종배, 원경도, 이현, 이희영, 정치상, 김치석 등을 입교시켰다. 67) 여주에 살던 김건순은 애초 주문모 신부에게 복벌을 설득하고, 이용후생을 배우고자 접근하였었는데, 이는 담헌 홍대용 등과 큰 테두리를 공유하는 장면이다. 68)

62)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I, 천주교수원교구 시복시성위원회, 2011, 157쪽에서, 차기진은 ‘이벽이 홍대용에게서 한문 서학서들을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홍대용은 노론 쪽 인물이고 이벽과 그의 집안은 남인에 속하기 때문이다.’하며, 남인과 노론의 교류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한다.(cf. 윤민구, 한국천주교회사의 쟁점연구, 2014 국학자료원, p.374).

63)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3, 서학.: 연행록,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2014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가운데, 이이명의 자제군관으로 1720년 고부사에 수행했던 이기지의 일암연기(1720. 7. 27 - 1721. 1. 7.)가 있다.(신익철, 일암연기 해제, <연행록선집보유> 상, 대동문화연구원 2008 참조). - 여러차례 선교사들을 만나, 수시로 서양화와 책들을 받았다.(p. 119).

64) 정조15년 11월11일; 정조16년 2월28일; 순조1년 12월24일; 정약용, 목민심서 해관 6조, 願留.: 충청감영기록 1845. 7. 20. 참조.

65) 황사영 백서, 58,60행.;姜彝天(1768생-1786진사)은 1797에 주문모와 접촉한 죄로 1801년에 효수됨.

66)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상, 488- 495.

67) 황사영, 백서, 54행; 사학징의, p. 119.

68) 홍대용 연구, p. 363.; 김시준역, 벽위편, p. 273.

9-1. 천주교 신앙을 반대하는 攻西派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천학초함]을 읽고

나서도 비판하였다면, 천진암강학에 모여서 공부하던 信西派의 (천진암)講學會者들은 더 적극적으로, [천학초함] 속에 들어 있는 여러 편의 글들을 읽었고, 특히 [교우론]도 읽고 실천에 옮겼을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

정약전(1758-1816)은 서울의 젊은 士類들과 交遊하며 견문을 넓히고 뜻을 高尚히 가져 이윤하(李潤夏)·이승훈(李承薰)·김원성(金源星) 등과 굳은 친분을 맺고 (定爲石交), 학문을 講論하고 琢磨하여 서로 더불어 덕을 쌓고 學業을 닦았다. (當此時。李承薰亦淬礪自強). 일찍이 이벽(李檠)과 從遊하여 曆數의 설을 듣고는 幾何원본을 연구하고 심오한 이치를 분석하였다.(嘗從李檠遊。聞曆數之學。究幾何原本). 69) 이런 내용은 [교우론]도 함께 읽고 실천하였음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9-2. [교우론]을 읽어 잘 알고 있으면서,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법과는 달리,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담은 표현을 정약용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정약용은 사돈 형인 이벽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는 광경을 시로 옮기면서, 同友人李德操檠乘舟入京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고, 이벽의 장례에 임하여 友人李德祖輓詞를 짓고 있는데, 그는 유독 이벽만을 友人이라 칭하고 있다. 70) 이렇게 丁若鏞 요한 사도(若望) 承旨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가장 흠모하며 따르던 스승격의 曠菴 이벽이 非命으로 32세에 殉教하자, 당시의 狀況과 世風人心을 輓詞로 표현한 것은, 8살 위의 스승격인 이벽을 [교우론]에 나오는 진정한 友人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71)

9-3. 또한 정약용은 귀양지 강진의 다산 동암에서 1815년에 지은 [심경밀험]에서, 다음과 같이 벗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樂記〉, 君子曰：“禮樂不可斯須去身。”/악기에, 군자 가로되, 禮(예의)와 樂(음악)은 잠시라도 몸에서 떼어놓는 것이 불가하니라. /이에 대하여, 伊川이 가로되, 학자는 경을 이야기하고 도를 논할(여기서 얼지만) 필요도 없이, 行事に 임하여 직접 권하고 勸容 周旋(朋友) 72) 하는 가운데 禮를 얻는다.(= 伊川曰：“學者有所得，不必在談經論道間。當於行事，動容周旋中禮，得之。”). / ○橫渠(북송 유학자) 가로되, 옛 사람은

69) 정약용, 선종씨(정약전) 묘지명.
70) 정약용, 第一集詩文集第一卷, 詩, 同友人李德操檠乘舟入京 四月十五日과 友人李德操輓詞.
71) 정약용, 자찬묘지명/從李檠遊 聞西教見西書./이벽 순교시기(1785)에 정약용은 천주교에 흠뻑 빠져.
72) 연암집 제3권,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회성원집(繪聲園集)》발문./= 주선인(周旋人)은 보통 시종드는 사람이나 문객(門客)을 뜻하는데, 당(唐) 나라 이전에는 한때 봉우의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각주 2.

친구와 금슬(악기)과, 간편(책)을 얻기를 바랐으니, 항상 ^심이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로, 사람이 비파와 책을 벗으로 삼으면서는 雅飭(언행이 아취 예의와 제도에 합치)을 維持(유지)하기가 쉽지만, 소경과 귀머거리, 병어리와 앓은뱅이, 걸인과 비천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무리를 (벗으로) 만나면서도, 엄숙하고 공경하는 기색을 잃지 않고, 예의를 유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橫渠曰: “古人欲得朋友與琴瑟、簡編, 常使心在於此。”

○案 人在朋友、琴、書之間, 能雅飭自持, 易, ^우고 ^자 ^통 ^아 ^벽 ^개 ^{비천} ^우 ^愁者, 73) 不失莊敬之色, 待之以禮, 難。).

9-4. 朋黨의 벽을 넘어서며, 진리를 찾고 기뻐하는 士類들의 학문적 교류가 있었던

한편, 신앙 안에서 모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班常의 사회적 단절을 사랑으로 극복하여 가는 천주교 공동체인 交友村도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한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면서 하인과 백정까지 정중하게 대우하였던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순교자의 경우를 보면, 그의 교우론 실천에 감격한 황일광 알렉시오는 “신분으로 보아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정중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천당이 두 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74) 이렇게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정신은 곧 [교우론]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였다.

10. [교우론]이 우리나라 작품에 반영된 흔적들

73) 천주실의 하권 8편 /其巡遊昭諭於民, 聾者命聽即聽, 瞽者命視即視, 喑者命言即言, 關聾者命行即行, 死者命生即生./ 여기서 귀머거리, 장님, 병어리, 앓은뱅이聾의 용어를 보면, 정약용이 심경밀험에서 사용한 용어와 비교하여 볼 때, 천주실의와 성경광익, 그리고 성세추요 등을 읽은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에 대하여, 소순태 교수는 훈고(訓詁)에 밝은 정약용이 멸문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태오 리치가 천주실의에서 인용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心經(宋 眞德秀 撰)의 樂記의 한 구절의 주해에서 이들 네 개의 낱글자들을 ‘예기정의’와 ‘태평어람’에서 가져다 쓴 것이라고 한다. 천주실의와 성경광익, 그리고 성세추요뿐만이 아니라, 천주강생언행기략 3권 4 若翰遣使詢主, 4권 5 加理勒亞聖蹟과, 천주강생성경직해 7권6a 성신강림후제2주일, -^우빈^약교^가 ^실휴^인입 등이 또한 심경밀험의 출처들로서 제시되고 있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소순태의 문답 글을 참조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73.htm> ; 다산 시문집 18권, 학유에게 준 가계에, ‘옛날의 선왕(先王) 들은 사람을 임용하는 데 지혜가 있었다. 소경에게는 음악을 살피게 하고 절름발이에게는 대궐문을 지키게 하며, 환관(宦官)들로 궁중을 출입케 하였으며 등급은 늪은이(癡)·불구자·허약자 등의 쓸모없는 무리들까지도 적당한 임무를 맡겼으니,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昔先王用物有智. 瞽者使審樂.跛者使守闈.奄者使出入宮闈.罷癡殘疾阨兀之屬.用各得宜.此事最宜商究也.

74) 달레 상, p. 474; 사학징의, p. 146.; cf. 요한복음 15, 12-17.

10-1. 천주공경가

“어화세상 **벗님**내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로 시작하는 이벽의 천주공경가는, ‘수시 이 성호 종학도와 현우 현사 賢友賢士 이씨 정씨네와 면학하시더라.’ 75) 했던 (천진암강학) 중에 노래로 지어 부른 단체 가 團體歌였다. 삼강오륜에서 우선시 하는 수직관계의 君臣, 父子, 夫婦의 관계에 앞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평적관계인 벗의 관계로 (朋友) 봉우 보며 중요시하였기에, 노랫말의 제일 앞에 배치하여 놓았다. 이에 반하여 이기경은 귀양 중에 작성한 심진곡 尋眞曲에서, 이벽의 천주공경가의 ‘어화세상 **벗님**내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에 대꾸하며, ‘길-가는 **아해들아** --이내말씀 **듣고가소**’로 하대 下待하는 표현을 하였다. 벽위편에서도, ‘저들은 父子, 君臣, 夫婦의 인륜을 중히 여기지 않고, 다만 우의 友誼를 존송하니’ 하며, 순암 안정복이 그토록 타일러 고치려 하던 천진암강학 관련자들이 벗을 첫 자리에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76)

10-2. 성교요지

[성교요지]가 [교우론]의 영향을 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 5 장 예수님의 가족

<u>東界友師</u>	동계우사	동방의 <small>사우</small> 師友들이
軍光詳視	군광상시	별빛으로 길을 상세히 살펴
造室辱臨	조실욕림	산실로 찾아와
伏拜依次	복배의차	(예수님께) 차례로 엎드려 절하였네.

5장에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東界友師로 표현하면서, 논어의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를 은연중에 암시하였다고 본다.

제 13 장 최후의 만찬

75) 이벽전, 9b.

76) [만천유교]에 들어있는 천주공경가는 최필선과 강영애의 글에 3명(백제순, 석우동, 조창환)의 가창자들이 있고, 백제순의 경우 1850년경부터 구전되어 오는 천주가사라고 한다.; 김시준역, 벽위편, 안순암의 천학문답, p. 34.; cf. 이대근, 조선후기 천주교 수용연구, 2014 대전 가톨릭대, p. 247 각주 71./‘어와 벗님내야 집구경 가자셔라’(李滉, 道德歌)는 [교우론]이 나오기 이전 시대의 것이나, 천주공경가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양업 신부, 천당 산양가(사향가), 오춘백씨(오배드루) 소장본에서, ‘어화세상 **벗님**내야 우리낙도 초즈가자, **지당**을 가즈흐이 아담원조 닌 | 처닛고, 복지로 가즈흐이 **믹스**(모세)선인 못드렸고(1)’ 하며, ‘오주예슈 강스 | 흠이 괴모흠이(기묘함) 세히로다.(5). 이 외에도 ‘어화 **벗님**내야 우리고국(고향) 차자가세’는 27, 28, 29, 30, 40. 에서도 나오고 있다.

工役貧富	공역빈부	일꾼 관리 빈자 부자
左右近交	좌우근교	좌우로 가깝게 사귀시며
餘論尤服	여론우복	여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班旅盡招	반여진초	흠어진 무리 초대하셨네.

13장 최후의 만찬 부분은,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벗이라고 부르겠다.’(요한 15, 15)는 말씀을 연상하게 한다. 일꾼과 관리, 빈자와 부자들이 서로 친하게 사귀고, 양반과 상인들이 모두 다 평등하게 살면, 하느님의 초대를 받는다는 평등사상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10-3. 니벽전

‘ 시세 무술년 이십오세라. 수시 이성호 종학도와 현우 현사 賢友賢士 이(승훈)씨 정(약용)씨 네와 면학하시드라. --광주 월양산사(천진암)에 은거하시매, 도우 道友가 성교 요지 중도하니 [聖教要旨] 를 하필하시더라. -- 기해(1779) 시세 이십육세시 현우 賢友 면학 위상(爲上)하야 중집산사하니 공이 기학다박하여’ 77)

이벽을 스승으로 모시고(위 상爲上) 함께 공부하는 나이 어린 사람들도 모두 서로 현우 賢友와 도우 道友로 칭하며, 친구처럼 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끝.

77) 이벽전, 9b.